

제주 119구조 4명 중 1명 공동주택서...

지난해 구조 인원 2451명 중 23.4%... 단독에선 5.8% 교통사고·승강기·산악수난사고 등 구조자도 적잖아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가 구조한 제주도 내 구조인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상, 승강기, 산악수난사고 등 구조자도 적잖아

수준)이며 ▷구조(처리)건수는 1만2689건(88만7119건 중 1.4% 수준)이다. 또 ▷구조인원은 2451명(11만4988명 중 2.1% 수준)이다. 제주인구가 전국 1% 수준인 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119의 구조활동비율은 타지역보다 높은 실정이다.

간힘 사고, 레저활동 중 산악 및 수난 사고 등에 따른 구조활동도 적잖았다. 장소별 구조인원은 도로 543명(22.2%), 승강기 357명(14.6%), 산 259명(10.6%), 하천·바다 203명(8.3%), 단독주택 141명(5.8%), 숙박시설 75명(3.1%) 등이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의 '2025년 6월 중 119신고접수 분석 및 재난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119에 신고 접수된 구조건은 1만2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93건에 비해 332건(3.4%) 늘었다. 다만 실제 출동 및 처리건수는 이보다 적다.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교육청, 합격자 60명 발표 최종합격자 25일 누리집 게재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시행한 2025년도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60명을 발표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총 50명을 선발하게 된다. 원서 접수 인원은 472명, 실제 응시 인원은 365명이다.

17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 직렬은 동점자를 포함해 30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다섯 과목 총점을 기준으로 460점(평균 92점)이다.

그 밖의 직렬에서는 교육행정(저소득층) 1명, 사서 2명, 식품위생 2명, 시설(건축) 3명, 시설관리(일반) 19명, 운전 3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는 오는 11~12일 사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25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채현기자



녹음 우거진 한라산 어리목 등반로 무더위가 이어진 9일 한라산으로 현장학습을 나온 고등학교생들이 녹음이 우거진 어리목 등반로를 걸으며 제주의 자연을 체험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상반기 신속집행률 72.9% 전국 7위... 1조6478억원 중 9142억 집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상반기 교육재정 신속집행률 72.9%를 기록하며, 전국시·도교육청 중 7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교육재정 전체 예산(본 예산·전년도 이월 예산) 1조6478억원 중 9142억(55.5%)을 상반기에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38개 세목에 대한

신속집행 분야에서 집행률 72.9%를 기록하며, 교육부가 제시한 목표 집행률 65% 대비 7.9%p를 상회했다. 도교육청 자체 상반기 설정 목표(72%)와 대비해서는 0.9%p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교육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월별 집행 계획 수립 및 점검, 사업별 실적 관리

강화 등 체계적 재정운용 관리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재정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기 예산 집행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하반기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지만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간간이 소나기... 폭염·열대야 해소 역부족? 11일까지 최대 50mm... 13일 비예보 가뭄 걱정 덜까

평년보다 때 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간간이 소나기가 내리고 비소식도 예보되며 무더위를 다소 해소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가뭄은 아니지만 수일째 1차산업 피해로 이어지면서 '단비'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고 있다.

9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최고체감온도가 33°C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상태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9일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고 10일 오전까지의 예상강수량은 5~40mm(많은 곳 60mm 이상)이다. 이어 11일에도 한라산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농작물 재배능가나 가축사육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주말인 12일에는 구름 많은 날을 보이겠고, 휴일인 13일에 비날씨(강수확률 60%)가 예보됐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예보가 변경될 수도 있다.

지난 8일 기준, 제주도 북부(제주)는 지난달 22일 일강수량 12.3mm를 기록한 이후 보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 나머지 지역도 지난달 24일 서부(고산) 1.2mm, 동부(성산) 1.5mm, 남부(서귀포) 4.8mm 이후 비가 없었다. 제주지역 장마는 평년과 달리 지난달 26일자로 조기 종료됐다.

백영탁기자

고물가시대에 짜장면 한 그릇 '5000원' 제주자치도 올해 착한가격업소 143곳 선정 김치찌개 7000~8000원... 86개소 신규 지정

식음료제품 인상에도 짜장면 한 그릇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음식가격이 저렴한 제주지역 착한가격업소 143개가 신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 신규 공모를 받아 총 194개 업소 중 143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착한가격업소 중 운영 기간이 만료된 63개소 중 57개소(90%)가 재선정됐으며, 첫 신청한 131개소 중 86개소가 새롭게 지정됐다.

제주자치도 착한가격업소 현장 평가단은 6월 한 달간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주요 외식품목 중 짜장면 5000원, 김치찌개 7000~8000원, 칼국수 7000~8000원에 제공하는 업소들이다.

제주자치도는 새로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앞으로 2년간(2025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각 행정시별 모니터링단을 통해 매월 현장 점검해 가격 인상 여부,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규 선정 업소를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총 364개소(2025년 7월 1일 기준)에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t(8만5500원)을 감면하고, 1년에 2번 전기·가스 요금을 각 5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한다.

위영석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여름방학 특선 한·중·일 크루즈 여행

전객실 발코니 프리미엄

ADORA MAGICCITY CRUISE(아도라 매직시티)
(13.5만톤 탑승 | 총 승객수 5,236명 | 2024년 1월 첫 운항 | 총 층수 16층)

선상 생활과 기항지 관광에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
1억원 국외 여행자보험가입

7박8일 총 250만원 출발: 제주 강정항 서귀포 도착: 상해(상해공항)→제주(제주공항) ※ 상해 제주항공료 포함

7월 25일 일본 홋카이도 여행 **단 하루** 서귀포 강정항-마미즈루(교토)-니이가타-하코다테(홋카이도)-상해-비행기(제주) ▶ 7월 12일 까지 모객 중

포함사항
크루즈 경비(크루즈내 식사 및 부대시설 비용), 기항지 비용, 크루즈 항공세, 여행자 보험, 전 일정 식사, 제주도→강정항 셔틀버스 제공

불포함사항
여권 및 발급 비용, 일본항 입항세: 1,000엔, 선상팁: 130(홍콩달러)×8일=1040(홍콩달러) 환화환산: 약 180,000원, 기타 개인비용 및 선내 유료 비용

전객실 발코니 딜럭스 이상

크루즈 제주닷컴 Tel. 064-748-7387 H·P 010-9690-7387